

직장법회 정토로 가꾸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안홍부씨,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양동선씨, 사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을 전하는 사이버 법사 박경수씨.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다래, 이들은 최근 동인지종 연합회를 구성하며 활기를 띠고 있는 직장직능법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지만 오늘도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바쁜 업무가운데도 직장법회 참석, 교리공부를 통해 신심을 키우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감사원 감사관 안홍부(53)씨, 지난 98년 감사원내 불자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자회 창립을 주도했고 감사원 특성상 출장이 많아 법회를 볼 수 없어 매달 순례법회를 제안한 것도 바로 그다. 그래서 지금도 순례법회 장소섭외, 홍보 등 모든 사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국공무원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성지순례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이끌어 내 공무원 불자사이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린시절 중·고등부 학생회, 대불련 활동을 통해 신심을 키운 그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불자회 창립을 돕기도 했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각 공무원불자들을 연결시켜줄 것 뿐입니다"라며 겸손해 하는 안씨는 "앞으로 공무원불자회의 내실을 다져 불자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즐겁게,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무원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국립서울정신병원 치과과장 양동선(42)씨는 그동안 매주 일요일 병행하는 정신병원불자회 법회에 한도 바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는 신일법우에게 법당예절 등 기본 교리를 가르쳐 주고 지도법사가 없을 때는 집전을 하며 직장법회를 지켜온 신장이다. 게다가 전국 병권불자연합회 창립 멤버로 지난 1일

안 홍 부 씨 감사원 불자회 · 공무원불자聯 창립주도
양 동 선 씨 신입회원 교리지도 · 무료의료봉사 앞장
박 경 수 씨 한전 통신망 시삽말마 사이버법사 활동
머루와 다래 사찰순회공연 · 호도잔치 · 고아원 위문

펼친 무료의료봉사활동의 모든 실무 업무를 도맡아 비지땀을 흘렸다. 2년 전 편도암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것기에 높고 병 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매주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가정법회를 본다는 그는 새 생명을 준 부처님께 감사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병원불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력 해외사업처 박경수(45) 수화력 기술팀장은 요즘 무척이나 바빠졌다. 사내통신망 파워넷의 반야회 대

표시사를 맡으며 사이버 법사로 활동하고 있고, 11월 24일 백양사에서 열린 전국전력인불자 연합대법회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온라인 상의 불교활동은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실행활동공간"이라 말하는 그는 두루넷 불교동호회 아재아재 바라아재 대표시사를 맡으며 매일 새벽 동산사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등 사이버 실행에도 열심이다.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 다래(본명 김정안, 48)도 불자가수들을 모아 대한불자가수회를 창립을 이끌어냈고 지금은 호도잔치, 고아원 위문 등 많은



◇안홍부씨



◇양동선씨



◇박경수씨



◇머루와 다래

행사를 기획하며 불법을 알리고 있다. 특히 4년전부터 전국 사찰 순회공연을 시작해 지금까지 다니지 않은 사찰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밖에도 철도청불자연합회 정찬연씨, 금융당불자회 이충훈씨, 한국세무사불자회 김태경씨 등 신심 돈독한 많은 불자들이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피시통신 동호회들이 최근 오프라인모임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14~15일 충북공산에서 열린 천리안 전국모임.

통신 불교동호회 전국모임 활발

유니텔 해국스님 초청법회
하이텔 장애인 돌기 바자
천리안 금산서 친목 다져

하이텔, 유니텔 등 피시통신 불교동호회가 새 대표시사를 선출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모임, 전국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유니텔 불교동호회는 18일 오기석씨를 새 대표시사로 선출하고 11월 5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전국모임을 가진다. 제주도 남곡선인 해국스님이 설법할 이날 대법회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 법륜사에서 등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박

경운씨를 초청, 서경지역 법회를 가졌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도 지난달 27일 이성모씨를 대표시사로 선출하고 21~22일 강화도 남산유스호스텔에서 후반기 전국모임 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우 7명이 동침해 강와 전등사를 참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가져와 경매방식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전액 장애우들에게 전달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또한 14~15일에는 대흥사에서 백제모임주관으로 정기수련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웠다.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14~15일 충남 금산 진산자연휴양림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김두식 기자

우리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보궁참배



한국세무사 불자회(회장 정구정)는 14~15일 강원도 일대 적멸보궁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40여명은 지도법사 청호(봉은사 시민선방)스님과 함께 영월 법흥사, 태백 정암사, 오대산 일정사 및 상원사를 참배했다. 특히 14일 저녁 월정사에서 개인신행담 발표 시간을 갖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신심을 키웠다. 세무사 불자회는 앞으로 두 달에 한번씩 테마가 있는 성지순례를 가질 계획이며 12월에는 인도·네팔의 부처님 8대성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경북회 연화사서 법회

경희의료원 경북회(회장 황보추)는 17

일 연화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연화사 주지 정일 스님이 반야심경을 강의했다.

불교언론인회 수련대회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4~15일 백담사로 수련대회를 다녀왔다. 수련대회는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주지 득우스님과 환담, '선이란 무엇인가'(이은운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남북화해를 위한 불교의 역할'(신광식)을 주제로 한 강의, 오세암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련대회는 공중파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신철 경향신문 논설실장, 이계호 대한매일 논설위원, 안영선 경인미디어 사장, 정희준 스포츠TV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게시판

알림

▲불교문화체질의 장 설치=조계사는 29일 서울 시민의 날을 맞아 인사동과 안국동 일대에서 참선시연, 연등 만들기, 바라춤, 발우공양시연 등 불교문화 체험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불교문화 향유를 알렸다. (02)720-1390

▲장례서비스센터 개소=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장례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화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무료 장례차 및 장례버스 지원, 장례비용 관련상담, 장례절차 상담을 실시한다. (02)385-1351

강좌

▲무료 한자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

관은 매주 일요일 1시 30분 무료 한자교실을 운영한다. 교재는 천자문과 반야심경, 금강경이고 배영고 한문교사 이수주씨가 강의한다. (02)571-2988

▲무료 요리·미용 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4일 오후 2시 한식, 양식, 중식요리 및 상차림 요리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27일 오전 10시 퍼머, 드라이, 커트,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무료 미용특강도 개최한다. (02)852-0525

▲천수경 수행과 기(氣)의 운용=기 의학연구원은 24~28일 5일간 부산역 대한통운빌딩 15층에서 오후 7시부터 천수경 수행과 기(氣)의 운용에 관한 강좌를 개최한다. (051)441-8180

모집

▲자원봉사자=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교실 어르신들에게 영어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한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밀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2282-1100

▲연꽃마을 후원자 및 후원단체=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후원자 및 후원단체를 모집한다. (02)365-3677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은 병원 안내소, 놀이방, 치과병원 차트기록실에서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2

▲호스피스 및 불교상담교육 수강자=대원사 자비신행회는 제 4기 한곳 호스피스 및 불교상담 교육에 동참할 수강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11월 3일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062)222-1165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노인전문요양원 효암마을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을 모집한다. 자격은 자격증소지자 및 교육수료자 등 관련자로서 30~50대 여성 불자로 구비서류는 이력서, 자격증(수료증)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이다. (02)385-8205

▲안산시립 영아외집 원장=안산시립 영아외집은 원장을 모집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시실장 자격이 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비구녀 스님이면 지원 가능하다. (031)408-3518

부음

▲불교방송 박관우기자 부친상=불교방송 보도국 박관우기자 부친 박찬영(향년 71세)이 18일 01시 30분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수환으로 별세.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풍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노·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판매사연 모집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밀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제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성분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나 세라토닌이라는 물질들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몸이 정말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력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난 물레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초주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불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이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통 발작이 잦고 통한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나귀 침상선으로 고름을 땀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라하세요